

현대캐피탈·한국전력 '신영석 트레이드' 후 '첫 만남' 팬들 관심

지난달 중순 대형 트레이드로 배구계 들썩

오늘 오후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맞대결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이 대대적인 트레이드 후 처음 서로를 마주한다. 두 팀은 2일 오후 7시 천안유원체육관에서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맞대결을 갖는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지난달 중순 대형 트레이드로 배구계를 들썩이게 한 팀들이다. 현대캐피탈 신영석, 황동일, 국군체육부대에서 군복무 중인 김지환과 한국전력 김명관, 이승준, 2021년 신인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주장이자 10년 만에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끈 신영석이 카드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트레이드 후 두 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전력은 신영석이라는 날개를 달고 처음 치른 지난달 15일 대한항공전에서 개막 8경기 만에 마술같이 승리를 챙기더니 연속 행진을

4경기까지 늘렸다. 검증된 센터 신영석이 상대 블로커 한 명을 묶어주면서 측면 공격수 러셀과 박철우의 견제가 느슨해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어스넷 승점은 13(4승7패)까지 늘린 한국전력의 순위는 최하위에서 4위로 수직 상승했다. 상위 3개팀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현대캐피탈전 승리가 절실하다. 같은 4승7패(승점 11)이지만 현대캐피탈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신영석 뿐 아니라 이승원(삼성화재), 김재휘(KB손해보험) 등 주축 선수들을 유망주들과 맞바꾸면서 미래를 도모 중인 현대캐피탈은 심한 후유

증에 시달리는 중이다. 중심을 잡아주던 선수들이 한 번에 사라지면서 2005시즌 V-리그 출범 후 최다인 6연패라는 수모까지 당했다. 표류하던 상황 속 허수봉의 복귀는 천군만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온 허수봉은 복귀전이었던 지난달 27일 우리카드전에서 18점, 공격성공률 56%의 준수한 기록을 남겼다. 덕분에 현대캐피탈은 지긋지긋한 연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상 밖 트레이드로 스토리가 쌓인 두 팀의 첫 만남이 팬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김미희기자



지난 11월 15일 수원 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한국전력과 대한항공과의 경기, 신영석이 공격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배구단 제공)

이용대 출격...요넥스, 언택트 배드민턴 대회 개최

5일 오후 무관중 진행

요넥스가 슈퍼매치에 이어 다시 한 번 배드민턴팬들의 갈증을 풀어 줄 언택트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용대, 유연성을 필두로 한 배드민턴 톱스타들과 국가대표들의 새로운 형식의 팀 매치, 더 레전드 비전 프레젠티 '믹스 앤 매치 배드민턴' 챌린지가 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요넥스 글로벌 공식 유튜브와 요넥스 배드민턴 글로벌 공식 페이스북, 네이버TV에서 온라인 라이브로 생중계 된다. 믹스 앤 매치는 배드민턴의 재미를 알리고 유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온 요넥스의 글로벌 프로젝트 '레전드 비전'의 일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배드민턴의 팀워크와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믹스 앤 매치에는 6명으로 구성된 2개팀이 일전을 벌인다. 경기 중간 주장이 선수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총 5경기(단식 2경기·복식 3경기)가 진행된다. 이용대팀인 'TEAM DEFENSE(팀 디펜스)'와 유연성팀인 'TEAM ATTACK(팀 어택)'으로 나뉜다. 두 선수는 드래프트를 통해 자신의 팀원을 선택했다. 이용대팀은 최술규(요넥스), 김원호(삼성생명), 안

세영(광주체고), 공희용(전북은행), 백하나(MG 새마을금고)로, 유연성팀은 서승재(삼성생명), 김기정(삼성생명), 김가은(삼성생명), 이소희(인천국제공항), 신승찬(인천국제공항)으로 꾸러졌다. 요넥스는 배드민턴 팬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무릎 수술 나성범, MLB협상 어려움 겪을 수도” 美매체

“수술 후 수비 범위와 운동 능력, 한 걸음 물러나”

미국 도전을 선언한 나성범(31·NC 다이노스)을 향한 시선이 엇갈린다. 현지 매체는 그의 파워를 인정하면서도 무릎 부상 이력에 몸을표를 달았다.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1일(한국 시간) “나성범이 포스팅에 나섰다”고 전했다. NC는 지난달 30일 KBO에 나성범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시를 알렸고, KBO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포스팅해줄 것을 메이저리그 구단에 요청했다. 나성범은 30일 동안 미국 3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현지매체도 나성범의 포스팅 소식을 전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나성범은 올해 34홈런, 2루타 37개, 3루타 2개 등을 치며 NC의 우승을 이끌었다”며 “KBO리그에서 스타급 활약을 펼쳤었다. 23세의 나이로 (1군에) 데뷔한 뒤

타율 0.317, 179홈런 출루율 0.384, 장타율 0.542, 2루타 244개, 3루타 25개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실력은 입증했다. 문제는 그의 부상 이력이다. 나성범은 지난해 5월 경기 중 슬라이딩을 하다 오른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다. 결국 오른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인대 재건술, 바깥쪽 반월판 성형 수술을 동시에 받았다. 당초 2019시즌 뒤 시도하려던 미국 진출 도전도 1년을 미뤄야 했다. 매체는 “무릎 수술을 받은 나성범은 2020년 지명타자로 대부분 출전했다. 올해 나선 130경기 중 50경기만 우익수로 뛰었다. 또한 올해는 커리어 중 가장 적은 4개의 도루 시도(3개 성공)만 했다”며 “이 모든 건 큰 수술을 받은 선수에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를 영입하려는 메이저리그 구단에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나성범의 부상 이후 모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스포츠인포 솔루션의 테드 바르다를 인용, “나성범은 왼손잡이 파워와 평균 이상의 준수한 타격 능력이 있다. 그러나 수술 후 나성범의 수비 범위와 운동 능력은 수술 이후 올해 한 걸음 물러났다”고 적기도 했다. 매체는 “보라스는 그것을 분명 1년의 일탈로 밀어붙이겠지만,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협상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시스

SK 와이번스, 민경삼 대표이사·김원형 감독 취임

김원형 감독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내년 이루고 싶다”



민경삼 SK 와이번스 신임 사장과 김원형 SK 와이번스 신임 감독이 지난달 30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와이번스 제공)

SK 와이번스가 새 수장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SK는 지난달 30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민경삼 대표이사과 김원형 감독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택트로 진행됐다. 민 대표이사는 “강한 SK를 만들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민 대표이사는 “SK가 처절한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내

년 시즌 팬들에게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 지난 45일간 쉽 없이 달려왔다”며 “팀 재건을 위해 현장 리더십을 교체했고,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하고, 코칭스태프를 보강하며 강한 SK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민 대표이사는 MBC 청룡, LG 트윈스 등을 거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은퇴 후에는 프런트로 변신, 2001년부터는 SK에서 운영팀장, 경영지원팀장 등을 지냈다. 2010년부터 2016

년까지 SK 단장을 맡기도 했다. 2020시즌을 9위로 끝내며 최악의 한 해를 보낸 SK는 팀을 가장 잘 아는 민 대표이사와 함께 재건을 나선다. 지난달 중순 대표이사를 맡게 된 민 대표이사는 빠른 움직임으로 비시즌 과제들을 처리해나가고 있다. 민 대표이사는 “이기는 야구, 재미 있는 야구, 감동적인 야구를 보여드리기 위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싶다.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근성과 투혼 넘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각 코치와 프런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업을 통해 강한 SK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 있다”며 “한마음이면 두려울 게 없다.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단을 지휘하는 김원형 감독은 “감독으로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감독은 1991년 고졸 우선지명으로 쌍방울 레이더스에 입단한 뒤 2000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SK에서 뛰었다. 이제는 사령관으로 SK를 이끈다. 김민정기자

여자농구 박지수 vs 박지현, 4일 빅매치

초반 선두 경쟁의 중요한 분수령



왼쪽부터 KB국민은행의 박지수, 우리은행의 박지현. (사진 = WKBL 제공)

여자프로농구 정규 KB국민은행과 아산 우리은행이 시즌 초반 선두 경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대결을 펼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는 4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2라운드 대결을 갖는다. 단독 선두 KB국민은행(7승2패)과 한 경기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2위 우리은행(6승3패)의 승부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1라운드 대결에선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이 71-68로 승리했다. 최근 물 오른 경기력으로 리그를 평정한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22·KB국민은행·193cm)와 가드 박지현(20·우리은행·183cm)의 두 번째 대결로도 큰 관심을 모은다. 박지현은 외국인선수 제도가 없

어지면서 센터나 다름없는 개인 기록을 찍으며 박지현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평균 18.7점(4위), 12리바운드(2위), 1.9스틸(1위), 1.4블록슛(3위), 3.8어시스트(10위)를 기록 중이다. 출전시간은 경기당 38분 38초로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다. 지난달 28일 부천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 29점 16리바운드로 커리어 하이 득점과 리바운드를 올리는 등 최근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연이은 더블더블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다. 또 3점슛이 약점으로 지적받았지만 최근 세 경기에선 성공률이 52.4%로 매우 정확하다. 21개를 시도해 11개나 성공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선 박지수가 24점 17리바운드, 박지현이 16점 9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손대범 KBSN 해설위원은 “최근 박지현은 본인이 경기를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모습이 뚜렷하다. 이전에는 쿼터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보완된 것 같다”며 “KB국민은행 입장에서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박지수에 대해선 “상대의 더블팀과 거친 플레이에 면역을 된 모습이다. 더블팀 방향을 보고 여유롭게 동료들을 살리는 어시스트가 많이 나온다”며 “결국 박지수의 존재로 상대 수비 1명은 (더블팀으로 인해) 계속 부담을 받게 된다”고 했다. 김미희기자